

##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이재경\*

1. 머리말
2. 조명관계의 단절과 명군의 對 조선 접촉
  - (1) 병자호란 직후 陳洪範의 조선 이용 시도(1637)
  - (2) 陳洪範의 2차 접촉 시도와 조선의 거부(1638)
3. 조선의 밀사 파견과 명의 연합 작전 구상
  - (1) 청의 징병과 조선의 밀사 파견(1638~1640)
  - (2) 王武緯의 1·2차 出使와 동상이몽의 전개(1640~1641)
  - (3) 조명 비밀접촉의 발각과 파탄(1642~1644)
4. 조명 비밀접촉의 배경과 의도
5. 맺음말

### 1. 머리말

병자호란과 명청교체는 조선의 대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사건들이었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2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명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요받았고, 명칭교체로 인해 기존의 天子國이었던 명 자체가 소멸해버렸다. 따라서 17세기 전반 조선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논저들은 대명관계가 대청관계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17세기 전반의 역사상을 볼 경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명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존속하였으며, 명의 쇠퇴는 조선을 포함한 모든 관찰자에게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누구도 명이 1644년에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sup>1)</sup> 둘째, 병자호란은 공식적으로 명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였으나, 명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1622년 榎島에 東江鎭이 설치된 이후 활성화된 해상 루트는 사신이나 상인이 왕래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 청이 조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접촉은 비밀접촉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관찬 사료에는 그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연구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1) 병자호란 당시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바 있는 金堉은 인조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강의 퇴폐나 농민반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물력이 풍부하므로 朝夕의 위급함은 없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6월 1일. 清代의 趙翼 역시 명의 멸망이 이미 神宗 萬曆帝 때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만약 명이 청과 조기에 강화하고 전력으로 농민 반란군을 진압했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으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趙翼, 『廿二史劄記』 卷35, 「萬曆中礦稅之害」, 797쪽 및 「明末書生誤國」, 806쪽(王樹民 校證, 『廿二史劄記校證』 下, 北京: 中華書局, 1984). Timothy Brook 또한 제반 여건상 명의 멸망은 불가피했다고 보면서도, 당시 사람들도 현재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Cambridge, Mass.;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242, pp.254-255, p.266. 杉山清彦은 명의 멸망을 경제적 격차와 국지적 치안악화로 분열된 상황에서 “패자”의 폭발이 취약한 심장부를 직격한 “돌연사”라고 평하였다. 杉山清彦, 「マンジウ国から大清帝国へ——その勃興と展開」, 『清朝とは何か』, 東京: 藤原書店, 2009, 87~88쪽.

기존 연구에서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관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한명기는 병자호란 이후 “漢船” 문제를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다루었으며,<sup>2)</sup> 여러 연구들이 崔鳴吉의 대명의리론과 그가 주도한 명과의 밀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국내 논저들은 병자호란 이후 양국의 접촉에 대한 언급이 극히 간략하며, 崔鳴吉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후대의 사료를 토대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조명 비밀접촉의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모를 최초로 조망한 연구자는 대만의 劉家駒이다. 그의 연구는 병자호란 이후 조명관계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조선과 명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상적·경제적 배경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sup>4)</sup> 그러나 그 역시 후대에 편찬된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한국측 연구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교적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당대 사료를 통하여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실상을 상당 부분 밝혀내었다. 寺内威太郎은 인조 20년(1642) 崔鳴吉 등이 청에 끌려갔던 “제2차 瀋獄”의 역사적 경과를 탐구하면서, 명과의 通謀 과정을 『陽坡年紀』 및 『瀋陽狀啓』 등 당대 조선 사료를 통하여 규명하였다.<sup>5)</sup> 王剛은 崇禎 13~15년(1640~1642) 명의 “聯鮮圖奴” 시도를 『明清史料』, 『中國明朝檔案總匯』 등 1차 사료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당시 명이 취했

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344~351쪽.

3) 대표적으로 위의 책, 202~203쪽; 한명기, 「류성룡과 최명길의 통치론, 외교적 행적을 통해 살피다」, 『조선의 통치철학』, 푸른역사, 2010, 219~225쪽; 오수창,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2005, 119쪽; 허태구,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研究』 162, 2013, 111~112쪽.

4) 劉家駒, 『清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343~396쪽.

5) 寺内威太郎, 「17世紀前半の朝中關係の一齣: 第2次瀋獄を中心に」, 『駿台史学』 96, 1996, 67~74쪽.

던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sup>6)</sup> 그러나 조선과 명 양측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 崔鳴吉과 林慶業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1640~1642년의 접촉에만 주목하고 있는 점은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실상을 병자호란 직후부터 명의 멸망까지 전 기간에 걸쳐 살펴보고, 이어서 비밀접촉의 배경 및 의도, 그리고 비밀접촉을 둘러싼 현장과 중앙의 입장 차이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양국 교섭에 관련된 문서들이 산재되어 있는 시기로서, 관찬 연대기만으로는 상황의 전개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과 명의 1차 사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소홀히 여겨져 왔던 조명관계의 마지막 모습을 파악함은 물론, 명청교체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2. 조명관계의 단절과 명군의 對 조선 접촉

### (1) 병자호란 직후 陳洪範의 조선 이용 시도(1637)

인조 15년 1월 28일, 청 태종은 인조에게 명으로부터 받은 誥命·印信을 반납하고 왕래를 끊으며, 명의 연호 대신 모든 문서에 청의 正朔을 받들 것, 椶島를 공격할 때 배 50척과 수군을 동원하여 동참할 것 등을 명령했다.<sup>7)</sup> 청은 조선을 명과 단절시켜 자신의 질서에 편입함과 동시에, 앓던 이와 같던 椶島의 명군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6) 王剛, 「明末王武緯出使朝鮮與「聯締緡奴」之議」,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5.

7) 『同文彙考』別編 卷2, 節使, 「【丁丑】定約條年貢論」.

조선은 청의 명령에 따라 椶島 정벌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에 항복한 사실 및 椶島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명에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월 9일, 인조는 신하들에게 椶島에 최근의 상황을 비밀리에 통고할 뜻을 밝히며 의견을 물었다. 2월 13일에는 평안감사 南銑이 椶島에 청의 습격 계획을 알리기를 청하였으며, 2월 14일과 4월 18일에도 執義 蔡裕後와 崔鳴吉이 각각 명에 奏聞할 것을 요청하였다.<sup>8)</sup> 이렇듯 청에 항복한 사실을 명에 알려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조나 신하들 사이에 공유되는 전제였으나, 청군이 조선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한편 崇禎 9년 12월 초에 병자호란 발발 소식을 접한 명은<sup>9)</sup> 崇禎 10년(1637) 2월 산해관 바깥의 병력 18,000명을 진출시켜 청을 견제하였고,<sup>10)</sup> 3월 12일에는 椶島의 東江鎭을 관할하던 總兵 沈世魁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總兵 陳洪範으로 하여금 조선을 구원하도록 명하였다.<sup>11)</sup> 하지만 명의 군사행동은 너무 늦게 발동된 데다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12)</sup> 조선이 청에 항복한 이후 명은 椶島 방어에 전력을 기울였으나,<sup>13)</sup> 椶島는 4월 8일 청·조선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었다.<sup>14)</sup> 沈世魁는 전사하였으

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9일, 13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14일, 4월 18일.

9) 凌義渠, 『奏牘』(續修四庫全書 493) 卷4, 「奏章有關緊密疏(崇禎 9년 12월 12일); 『國權』(北京: 中華書局, 1958) 卷95, 崇禎 9년 12월 丁酉(27일).

10) 凌義渠, 『奏牘』 卷4, 「圖奴固在先著制勝尤貴萬全疏(崇禎 10년 2월 15일).

11) 『國權』 卷96, 崇禎 10년 3월 辛亥(13일). 登島太監 陳應祥도 수군을 통한 청의 후방 교란을 주장하였다. 楊嗣昌, 『楊文弱先生集』(續修四庫全書 1372, 이하 『楊文弱集』) 卷9, 疏, 「覆登監塘報疏」.

12) 金埴,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閏 4월 18일; 凌義渠, 『奏牘』 卷5, 「屬國情形已見登島時刻宜防疏(崇禎 10년 2월 20일), 「除兩鎮出海聲援外, 別無救急之奇著, 除關寧發兵搗剿外, 別無牽掣之全力.」; 『國權』 卷96, 崇禎 10년 3월 辛亥(13일).

13)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遵旨確議水兵疏」.

14) 椶島 전투의 전개 상황은 劉建新·劉景憲·郭成康, 「一六三七年明清皮島之戰」, 『歷史檔案』 1982-3을 참고.

며, 陳洪範은 石城島로 탈출, 패잔병을 수습하였다. 명은 조선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椴島가 함락되는 뼈아픈 손해를 맛보았고, 명이 조선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력은 격감하였다.

하지만 명은 실낱같은 형태로나마 조선과의 연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北京에는 전년 6월에 파견된 聖節千秋進賀使 金堉 일행이 체재하고 있었다. 병부상서 楊嗣昌은 이들을 조선까지 호송함으로써 조선의 상황을 정탐함과 동시에 “屬國의 마음을 붙들기를” 청하여 승정제의 허가를 받았다.<sup>15)</sup> 명 조정뿐만 아니라 金堉 일행이 지나는 길의 軍門에서도 조선의 항복을 책망하지 않고 조선을 회유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보였다.<sup>16)</sup>

한편 長山島에 머무르고 있던 明將 陳洪範은 명 조정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椴島 함락 이전부터 조선의 내응을 기대하였던 듯하며,<sup>17)</sup> 椴島에서 철수한 뒤인 윤 4월에도 조선에 票文을 보내 회유하면서 평안병사 柳琳과 의주부윤 林慶業에게 箭付를 내려 그들을 副總 혹은 總兵으로 임명한 바 있었다.<sup>18)</sup> 陳洪範은 金堉 일행이 長山島에 도착하자 용숭하게 대접하고, 5월 4일에는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은 帖을 주면서 국왕에게 전달하고 속히 회보해줄 것을

15)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陳愚見請聖裁疏」; 金堉,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4월 20일; 『通文館志』 紀年 仁祖大王 15년 丁丑. 金堉 일행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李迎春,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淸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 『조선시대사학보』 38, 2006; 金英淑, 「明末의 中國社會와 朝鮮使臣의 外交活動」, 『명청사연구』 31, 2009; 조창록, 「1636년의 해로 사행과 李晩榮의 『崇禎丙子朝天錄』」, 『人文科學』 47, 2011.

16) 金堉, 『朝天錄』(『燕行錄全集』 16), 「回泊石多山」(丁丑五月十二日), 430~431쪽.

17)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覆登萊撫監敵圖鮮用鮮疏」, “總兵陳洪範猶言, “鮮應於內, 我乘於外, 未必非創敵實著, 殊屬誇誕”

1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윤 4월 11일;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5일, 18일; 李植, 『澤堂集』 卷7, 呈文, 「平安監司呈文」, 揭帖, 「白副總前平安兵使答帖-別帖」. 이는 劉家駒, 앞의 책, 351~352쪽 및 張存武, 「淸韓關係 一六三六一六四四」,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 33~34쪽에도 소개되어 있다.

요구하였다.<sup>19)</sup> 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요구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안건은 급히 접반사를 長山島로 보내 자신의 막하에 머물면서 명과 조선, 사실상 자신과 조선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sup>20)</sup> 이외에 청을 위해 수군을 파견하지 말되, 부득이하면 반드시 먼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陳洪範은 또한 차후 조선이 명 조정에 奏聞할 일이 있을 때 陪臣을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移咨하면 대신 轉奏해주겠다고 하여 조선과 명의 연락을 중계·독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sup>22)</sup>

陳洪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陳洪範이 이전부터 沈世魁를 대신하여 東江鎮을 접수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sup>23)</sup> 그는 조선의 협력을 얻어 椴島를 탈환하거나, 椴島에 준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이것이 달성되면 자신이 東江鎮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조선과의 밀접한 연락 유지는 필수적이었다.

19) 金堉,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 5월 3~4일. 陳洪範과 함께 있던 監軍 黃孫茂와 副總 白登庸, 劉太監도 揭帖을 보내왔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3일 및 李植, 『澤堂集』 卷7, 「白副摠前平安監司答帖」, 「白副摠前平安兵使答帖」, 「黃監軍前回帖」, 「劉太監前回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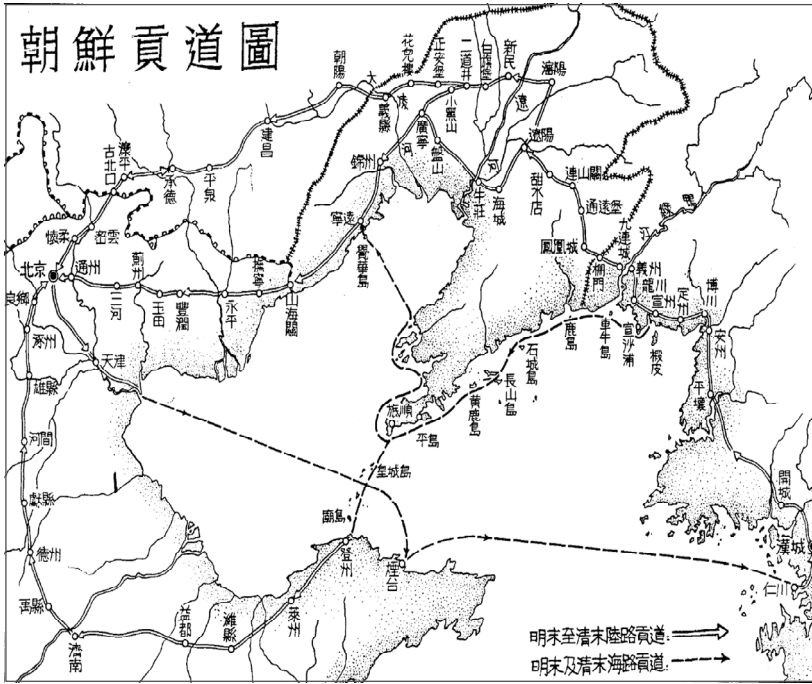
20) 李晚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3일, “遣官而置其幕府, 似有難矣.”

21)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22) 李晚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此後凡有奏聞之事, 勿爲委遣使臣, 移咨於我, 我當轉奏.”

23) 李晚榮, 『雪海遺稿』 卷3, 「崇禎丙子朝天錄」, 丁丑 5월 4일, “白副摠輩言, 當初朝廷差遣陳老爺, 以代沈世魁, 鎮守東江. …… 故陳老爺往來諸島, 久爲經營.”

24)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提督陳洪範塘報之末有云, 候屬國回書, 知會催發兵船, 進復皮島.” 단 陳洪範이 椴島에 다시 設鎮하려고 했는 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山松曰, 按, 此後先人旋附陳云, 適接洪範稟云, 皮島昔日虐侮麗人, 今適人暫去, 麗人不樂我兵復駐. 又一稟云, 朝鮮被難, 觀望兩端, 不願皮島再踵前報.”



지도 1. 「朝鮮貢道圖」. 張存武, 『清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8, 32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陳洪範의 시도는 당시 명의 군사전략을 총괄하던 병부상서 楊嗣昌의 의향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楊嗣昌은 일찍부터 陳洪範이 조선을 이용하고자 한 것에 비판적이었으며,<sup>25)</sup> 조선과 연락하려는 구상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楊嗣昌은 조선이 청의 감시를 피해 명과의 군사적 협력에 나설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26)</sup> 둘째, 楊嗣昌은 애초부터 椴島 東江鎭의 청 견제 역할에 부정적이었고, 島帥들의 장사에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sup>27)</sup> 그의 입장은 잔존 병력을

25) 주17 참고. 楊嗣昌의 對 朝鮮 정책은 李超, 「楊嗣昌軍事策略研究」,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19~21쪽에서 간략히 다루어진 바 있다.

26)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登州 부근 皇城島와 寧遠 인근 覺華島로 철수시키고, 난민은 錦州·寧遠 등지에 安插하자는 방어 중시책이었다.<sup>28)</sup> 승정제 역시 楊嗣昌의 논의에 따라 陳洪範에게 신중한 행동을 당부하도록 하였다.<sup>29)</sup> 명 조정은 당장의 椴島 탈환이나 조선과의 재접촉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도 陳洪範의 접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신했다. 윤 4월 15일, 비변사는 陳洪範의 票文에 대해 조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답서를 평안감사 명의로 작성해서 내려보내자고 청하였고, 인조는 이를 윤허하였다.<sup>30)</sup> 다른 한편, 조선에서는 林慶業을 통해 청에 陳洪範이 접촉해 온 사실을 알리도록 결정하기도 하였다.<sup>31)</sup>

金堉 일행이 돌아온 뒤, 인조는 6월 3일에 신료들을 모아 陳洪範에게 사신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sup>32)</sup> 이 자리에서 金鑾·李弘胄·具宏·尹暉는 청에 누설될 위험성을 들어 陪臣의 파견이나 회답에 반대했으나, 沈悅·崔鳴吉은 은밀히 답서를 보내어 앞으로 서로 소통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조는 이에 國書로 회답할 것을 명하고, 陳洪範의 差인이 오면 그 편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때 陳洪範과 그 휘하의 黃孫茂·白登庸 등에게 보낼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들은 李植의 『澤堂集』에서 총 10건(咨文 1건, 报文 1건, 揭帖 8건)이 확인된다. 그 목록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7) 楊嗣昌, 『楊文弱集』 卷10, 疏, 「遵旨確議水兵疏」; 卷11, 疏, 「覆監科東事決裂已甚疏」; 卷15, 「覆登監兵垣道將激變島眾疏」; 卷24, 「覆登撫島事初定疏」.

28) 楊嗣昌, 『楊文弱集』 卷14, 疏, 「覆登監塘報接渡難兵疏」, 「覆山永巡撫海島情形疏」.

29)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疏, 「覆登監仰仗天威疏」.

30)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5일.

31)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윤 4월 18일. 이상 票文에 대한 대응은 劉家駒, 앞의 책, 351~352쪽 참고. 단 실제 청에 陳洪範의 접촉이 통보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2)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3일.

〈표 1〉 『澤堂集』 卷7 수록 조선측 외교문서(丁丑年)

번호	제 목 <sup>33)</sup>	비 고
①	陳都督前咨文(丁丑)	崔鳴吉, 『遲川集』 卷17, 雜著, 「移陳都督咨(丁丑)」 <sup>34)</sup>
②	平安監司呈文	陳洪範의 傳諭에 答한다는 내용
③	陳都督前回帖[117b]	陳洪範의 글에 答한다는 내용
④	白副總前回帖[118a]	보내준 書帖에  회답하는 내용
⑤	白副總前平安監司答帖	전임 평안감사 南統 앞으로 보내온 揭帖에 대해 윤 4월 18일에 임명된 후임 감사 李祘이 答장
⑥	白副總前平安兵使答帖	윤 4월에 전해진 柳琳·林慶業에 대한 箭付 反答
⑦	陳都督前回帖[117d]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答서
⑧	白副總前回帖[118c]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答서
⑨	黃監軍前回帖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答서
⑩	劉太監前回帖	金堉 일행이 귀국할 때 보내온 揭帖에 대한 答서

이 문서들은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陳洪範에게 보내는 咨文인 ①이 먼저 작성되어 있었고, 윤 4월 陳洪範의 첫 번째 접촉 시도를 계기로 ②~⑥이 작성되어 ①과 함께 발송되었으며, 金堉 일행이 가져온 陳洪範 등의 揭帖에 다시 答장하는 형식으로 ⑦~⑩이 작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서들의 내용은 대체로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패망한 상황을 호소하고, 조선의 사정에 동정과 관심을 표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직접 회답을 보내거나 명 조정에 사신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항복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해받는 동시에, 명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

33) 제목이 같은 경우 구분을 위해 영인본(한국문집총간 88)에서 해당 글이 시작되는 쪽수를 표시하였다.

34) 두 문서는 내용이 거의 같으나 구성 순서가 다르고, 崔鳴吉의 글이 더 길다. 李植의 초안을 崔鳴吉이 수정한 것으로 보이나, 어느 쪽이 正本인지는 알 수 없다.

므로 당분간 더 이상의 접촉을 삼가 달라는 무언의 요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陳洪範의 요청이 원래 陪臣을 자신에게 파견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의 제안을 거부하는 조선의 의중은 명백하다.

조선 조정은 陳洪範에게 따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陳洪範의 差人이 오면 답신을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 따라 ①~⑥은 6월 이전 이미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며,<sup>35)</sup> 禮單과 함께 陳洪範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6)</sup> 6월 중순에는 金堉 일행을 통해 전해진 揭帖에 대한 답신(⑦~⑩)이 평안도로 출발하였다.<sup>37)</sup> 그러나 후자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해상의 명군에 급변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sup>38)</sup>

## (2) 陳洪範의 2차 접촉 시도와 조선의 거부(1638)

崇禎 10년(1637) 5월, 長山島·石城島의 명군 내에서 반란이 터졌다. 沈志祥이 숙부 沈世魁의 뒤를 이어 總兵이 되려다가 이를 막는 黃孫茂·白登庸을 죽이고 總兵을 자칭한 것이다.<sup>39)</sup> 이로 인해 조선과 陳洪範의 접촉은 일시 단절되었다.

沈志祥에 대해 명 조정은 적극 토벌을 결정하였고,<sup>40)</sup> 반란으로 인

35) 李植, 『澤堂集』 卷7, 揭帖, 「白副總前回帖」(⑧), “卽因回舶, 付便裁謝, 並於督府大人前, 具呈咨帖, 略布衷曲, 想今已徹記室也.” 『通文館志』 紀年, 仁祖大王 15년 丁丑에도咨文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단 金堉 일행의 보고에 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5월 초까지는 陳洪範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6) 『瀋陽狀啓』 丁丑年(1637) 9월 6일.

3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12~13일.

38) 단 조선 조정에서는 두 차례 문서를 통하였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아, 문서의 발송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鄭泰齊史草』(한국사료총서 38)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或以爲上年再次通書, 而淸人未覺.” 또한 주53 참고.

39) 『國權』 卷96, 崇禎 10년 5월 壬午(15일); 『淸史稿』 卷234, 列傳21, 沈志祥, 9417쪽; 楊嗣昌, 『楊文弱集』 卷15, 「覆登監兵垣道將激變島眾疏」.

해 登州로 쫓겨나 있던 陳洪範이 崇禎 11년(1638) 2월 출격하여 沈志祥을 격파하였다.<sup>41)</sup> 토벌군에 밀린 沈志祥은 2월 말 청에 귀순하였다.<sup>42)</sup> 이후 명은 楊嗣昌의 구상대로 각 섬에 흩어져 있던 난민들을 錦州·寧遠 등지에 安插하였으며, 병력을 登州·旅順 사이에 위치한 皇城島까지 후퇴시켰다.<sup>43)</sup>

이 과정에서 陳洪範은 다시 한 번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3월 6일, 의주부윤 林慶業은 휘하의 전 판관 崔孝一과 漢人 張壽祺의 접촉을 보고해 왔다.<sup>44)</sup> 그의 말에 따르면 명이 일본, 琉球, 安南, 西洋 등에 병력을 청하여 청을 칠 것이며, 陳洪範은 舟師를 거느리고 石城島에 머물러 있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林慶業은 陳洪範이 만일 조선 경내에 정박한다면 어찌할 것인지 지시를 청하였다.

일찍이 인조 16년(1638) 1월, 조선 조정은 漢船이 왕래했을 경우 小譯으로 하여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통보할 것을 결정한 바 있었다.<sup>45)</sup> 하지만 陳洪範의 咨文은 무시할 수 있어도, 황제의 명을 받아 移咨한다면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비변사에서는 문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 는 청에 알리거나, 아예 문서를 받지 않거나, 미리 답변할 문서를 만

40) 당시의 상황 및 명 조정의 대책은 凌義渠, 『奏牘』 卷6~7 및 楊嗣昌, 『楊文弱集』 卷15~21에 있는 관련 題本 및 李超, 앞의 글, 16~19쪽 참고.

41) 『中國明朝檔案總匯』(이하 『明檔』) 29, 二一九五 「登萊巡撫楊文岳爲鎮臣陳洪範統領水師奪回石城島報捷事題本」(崇禎 11년 3월 12일), 332쪽.

42) 『清太宗實錄』 卷40, 崇德 2년 2월 26~28일.

43) 『明檔』 29, 二一九四 「登萊巡撫楊文岳爲請將各島現存兵民分散安置寧錦事題本」(崇禎 11년 3월 12일), 330~331쪽; 『明檔』 39, 二八〇五 「山東巡撫王國賓爲遵報登萊防務情形事題本」(崇禎 14년 1월 18일), 105쪽. 단 명이 요동 남단의 섬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수비대를 잔존시켰다.

44)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6일; 『續雜錄』(한국고전번역원 국역 『대동야승』 8) 4, 戊寅年 2월. 인조 16년 3~4월 陳洪範의 2차 접촉은 劉家駒, 앞의 책, 352~353쪽도 다루고 있으나, 『인조실록』만을 활용하여 내용이 소략하다.

45)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1월 庚辰(16일), 戊子(24일);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25일. 또한 『譯官上言臚錄』(奎 12963) 戊寅 1월 17일 기사 참고.

들어 두었다가 漢船에 부치도록 하여 다시 문서를 보내오는 걱정을 막는다는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인조가 선택한 것은 마지막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陳洪範에게 조선의 상황을 양해해 줄 것을 바라는 문서가 李景奭에 의해 작성되었다.<sup>46)</sup> 조선의 목표는 陳洪範의 지속적인 접촉을 중단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는 청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하였다.<sup>47)</sup>

조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에는 都司 徐如周·夏雲騰, 通官 熊守禮, 守備 陸大勳 등을 태운 唐船 2척이 의주 해안에 정박하고 문서를 전달하고자 했다.<sup>48)</sup> 이들은 조선국왕과 林慶業에게 보내는 글 각각 1통을 주면서 만일 받지 않는다면 장차 한양 근처까지 가서 전달할 것이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명과 단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명이 일본에 군사를 요청하여 조선을 지나갈 것이니 조선의 君臣은 椶島 以西의 섬으로 피하여 와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만난 崔孝一은 일단 문서를 받지 않고 林慶業에게 급히 보고하였고, 林慶業은 다시 조정에 문의하였다.

비변사에서는 4월 17일에 이것이 陳洪範의 이간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명에서 조선을 의심할 것을 생각하면 문서를 접수해야 할 듯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이는 어디까지나 潛商·偵探하고자 하는 계책에 불과하니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였다.<sup>49)</sup>

4월 18일, 인조는 명이 조선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조선을 의

46)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6일. 또한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3월 7일 기사도 참고.

47)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3월 11일.

48)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4월 17일; 『續雜錄』 4, 戊寅年 5월; 『野言記略』(한국사료총서 45) 卷2, 戊寅 5월. 이 중 『鄭泰齊史草』가 가장 자세하다.

49)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17일.

심할 염려는 없지만 문서를 받으면 눈앞의 난처한 근심이 반드시 이를 것이며, 혹시 이것이 청에 항복한 沈志祥의 무리가 조선을 시험하는 계책일 수도 있다고 전교하여 문서 접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변사는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이번 漢船은 陳洪範이 보낸 사람들임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번 왕복하여 다시는 오지 말라는 조선의 뜻을 진달하고, 청에도 이를 통보하여 양쪽이 유감을 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차후에 만약 난처한 일이 생기면 주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차가운 비답을 내렸다. 인조의 강경한 입장에 비변사도 한 발 물러서 일단 현지에서 문답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뒤에 다시 稟處하겠다고 하였다.<sup>50)</sup>

4월 19일, 재차 林慶業의 장계가 도착했다. 이에 따르면 명의 都司들은 다시 문서를 전하러 하면서,<sup>51)</sup> 일본군이 곧 동원될 것이라고 허풍을 떠는 한편, 황상이 따로 파견한 “勅使 道爺邵起”가 陳洪範과 함께 이미 石城島에 도착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陳洪範에게 問安使를 파견하지 않은 것을 따지고, 해로로 登州를 거쳐 바로 조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국왕에게 보내는 문서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칙사가 올 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林慶業에게 보내는 문서 및 禮單을 억지로 놓아두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직접 대화를 담당한 製述官 權忒은 청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인조 앞으로 온 문서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였다.

비변사는 청이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의견과 칙사가 와 있다는 데도 조선이 반응하지 않으면 명으로부터도

50) 『鄭泰齊史草』崇禎 11년 4월 辛亥(18일); 『승정원일기』인조 16년 4월 18일.

51) 이 중 林慶業에게 주는 글은 瀋陽에서 도망친 漢人이 명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준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鄭泰齊史草』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麾下忠義素著, 不佞所欽服者, 夏都司備言麾下接渡楊千摠陳把摠, 足感爲天朝至意, 今叛人沈志祥敗走投虜, 倘有虜情諸事, 幸麾下不時間見, 至望至望, 一芹將敬, 惟監納榮藉.”

눈앞의 재난이 닥칠 것이므로 문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음을 밝히고, 일단 林慶業으로 하여금 都司들과 몰래 만나 설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인조의 승낙을 얻었다.<sup>52)</sup>

지시를 받은 林慶業은 4월 말에 직접 都司들과 접견하였다. 이들은 국왕 앞으로 보내는 문서와 예물을 다시 제시하면서 그 회답을 받겠다고 나섰다.<sup>53)</sup> 이에 林慶業은 울면서 都司들과 손을 마주 잡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都司들을 설득하였고, 今年에는 조선으로 배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都司들은 林慶業의 말에 따라 陳洪範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 조선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인조 앞으로 온 문서를 수령하거나 답서를 전달하는 일 없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인조의 의향대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후 조선 조정은 청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朝報 등에도 이 사실을 내지 않으며, 사관에게도 비밀문서를 보이지 않는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여 사건의 누설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sup>54)</sup>

명의 都司들이 비교적 순순히 물러난 것은 陳洪範의 행동이 명 조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적 시도였던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명측 사료에 따르면 조선을 이용해 이간책을 시도하겠다는 현장의 발상에 대해 병부상서 楊嗣昌은 극히 부정적이었으며, 속히 반

52)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19일. 『인조실록』의 同日 기사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때 비변사는 禮單 지급을 주장했으나 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조는 이후 이들의 문서를 받지 않는 것이 義理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4월 27일.

53)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癸亥(1일), “都督有致國王前文書及禮物, 欲得其回報, 以占貴國永絕天朝與否, 而禮物, 蓋回答貴國二月所送之禮也.” “二月所送之禮”는 전술한 崔孝一과 張壽祺의 접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54)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5월 22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22일. 또한 同年 10월 명 특산물인 靑布의 對淸 수출을 금한 것도 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辻大和, 「丙子の乱後朝鮮の對淸貿易について」, 『内陸アジア史研究』 30, 2015, 16~17쪽.

란군의 잔당 처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sup>55)</sup> 또한 명의 都司들이 “勅使 道爺邵起”라고 지칭했던 인물은 사실 陳洪範 휘하의 通判에 지나지 않았다.<sup>56)</sup> 무엇보다, 陳洪範이 1차, 2차 접촉을 통해 획득한 조선의 반응이 명 조정에서 보고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인조의 예측대로, 陳洪範의 2차 접촉은 石城島까지 진출한 기회에 조선을 떠보기 위한 돌발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陳洪範이 보낸 都司들은 조선 내부의 명 연호 사용 실태라든가, 일본의 침입 풍문 등 조선의 내부 사정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협상의 재료로 활용하였다.<sup>57)</sup> 이는 陳洪範의 휘하에 와 있던 조선인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up>58)</sup> 이들 중 林慶業에 의해 붙잡힌 인물이 있었다. 그는 郭山 사람으로서 승려가 되어 香山寺에 있다가 전년에 陳洪範의 휘하로 건너가 조선의 상황과 楸島 전투의 전말을 전해주었고, 이번에 都司들을 따라 조선의 상황을 정탐하러 건너온 것이었다. 林慶業은 그를 비변사로 올려 보냈다. 그가 이후 조선의 밀사로서 명에 파견되는 승려 神歇(일명 獨步)이었다.<sup>59)</sup>

55) 楊嗣昌, 『楊文弱集』 卷23, 疏, 「覆登撫海外塘報未明疏」.

56) 『明檔』 29, 二二〇六 「沿海總兵陳洪範爲報黃骨島賊聚已不敢出戰沈志祥外逃并安置島眾事題本」(崇禎 11년 3월 19일), 374쪽, “臣遣金聲桓, 隨通判邵起給糧招撫.”

57)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仍問貴國三南, 用崇禎年號, 王京士子, 只書戊寅年月, 衙門則用崇德年號云, 然耶?”; 同書 4월 辛亥(18일), “至於倭人一款語, 終涉孟浪, …… 無乃彼見本國方有南憂, 藉此以爲恐動之計者耶?”

58)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庚戌(17일), “爾國人三月間, 乘船潛入石城島, 爲言朝鮮見汚於腥膻, 而又聞日本動兵, 當舉家入來, 寧爲天朝之鬼, 誓不作夷虜之民, 都督慰而撫之.”

59)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癸亥(1일). 都司들은 돌아갈 때 그의 入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묵살하였다.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2일;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5월 1일.

### 3. 조선의 밀사 파견과 명의 연합 작전 구상

#### (1) 청의 징병과 조선의 밀사 파견(1638~1640)

都司들이 돌아간 인조 16년 5월 이후, 한동안 양국 사이의 접촉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명의 정세 탓이 크다. 청은 그해 9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대대적으로 명 내지를 유린하였고,<sup>60)</sup> 방어에 급급한 명 조정은 조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조선과의 연결을 주도했던 陳洪範 역시 해상에서 귀환한 이후 登萊를 떠나 流賊 토벌에 동원되었으므로,<sup>61)</sup> 조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주체 역시 사라져 버렸다.

아울러 楊嗣昌이 군사전략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명에서는 조선과의 연결 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sup>62)</sup> 예를 들어 崇禎 11년 8월 石城島에 조선 선박이 표류하자 登萊의 지방관들은 배 한 척이라도 명의 島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sup>63)</sup> 병부에서는 조선이 다시 조공할 때를 기다려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청해 윤희를 받았다.<sup>64)</sup> 崇禎 12년(1639) 10월 조선, 차하르 등과 연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병부는 명확히 거부하였다.<sup>65)</sup> 조선이 명에 조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선과의 어떤 교류도 행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60) 閻崇年 分卷主編, 『清朝通史太宗朝』,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2, 237~247쪽.

61) 楊嗣昌, 『楊文弱集』 卷26, 疏, 「秦撫出剿甚奇疏」; 卷27, 疏, 「十八審機互疏」; 『國權』 卷97, 崇禎 11년 3월 辛巳(24일).

62) 楊嗣昌은 崇禎 11~12년 대부분에 걸쳐 병부상서였다. 張德信, 『明代職官年表』 1, 合肥: 黃山書社, 2009, 390쪽 및 671~674쪽.

63) 『明清史料』 乙編 第3本, 「兵科抄出登萊巡撫楊文岳題本」(崇禎 11년 9월 13일), 227~228쪽.

64) 『明清史料』 乙編 第3本, 「石城島千總鄧定國隱匿哨獲麗船參斤等情殘件」, 233쪽.

65) 『明檔』 32, 二四三五 「兵部爲陳自強制勝之策事題行稿」(崇禎 12년 10월 25일), 266쪽.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 먼저 명에 奏聞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인조 16년 8월 조선이 청이 정한 날짜에 맞춰 군대를 동원해 보내지 못하자, 청은 조선을 크게 힐책하였다.<sup>66)</sup> 조야에서는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인조 역시 심한 부담감을 토로했다.<sup>67)</sup> 椶島는 엄밀히 말해 中原 출신의 피난민일 뿐이었지만,<sup>68)</sup> 명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히 대명의리를 배신하는 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명에 조선의 상황을 奏聞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자호란 종결 직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다시 제기된 바 있었다.<sup>69)</sup>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조선군이 곧 명군과 직접 교전할 형편이 되자,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했음을 고하고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병력의 출동이 눈앞에 닥친 7월 29일, 호조판서 沈悅은 都督, 즉 陳洪範에게 사세의 부득이함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주장하였다.<sup>70)</sup> 결국 인조는 8월 23일 비변사에 명하여 민을 만한 사람을 몰래 陳洪範에게 보내 부득이한 상황을 통보하게 하였다.<sup>71)</sup> 청의 파병 요구가 인조로 하여금 명과의 연락을 재개하도록 몰아간 셈이다.

그러나 인조의 명령대로 陳洪範에게 바로 조선의 부득이한 상황이 통보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陳洪範은 이미 流賊 토벌을 위해 登萊를 떠난 뒤였다. 또한 청에서는 기한에 늦게 들어온 조선군을 도로 쫓아 보내었으므로, 조선군이 직접 명군

66) 당시의 징병 문제에 대해서는 劉家駒, 앞의 책, 211~229쪽; 張存武, 앞의 글, 35~40쪽; 한명기, 앞의 책, 220~221쪽 참고.

67)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8월 1일, 9일, 19일.

6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3월 20일; 『승정원일기』 同日.

69)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17일, 5월 13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5월 乙亥(13일).

70)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7월 29일; 沈悅, 『南坡相國集』 卷3, 劄, 「戶曹判書時劄(戊寅七月)」.

71)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8월 23일.

과 전투하는 곤란한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회피되었다.<sup>72)</sup> 따라서 실제 밀사가 파견되었는지, 파견되었다면 언제였는지를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崔鳴吉은 훗날 밀사 파견 문제 때문에 청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조 17년(1639) 8월에 승려를 명에 들여보냈다고 말하였다.<sup>73)</sup>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명과의 밀통 책임을 전담하기 위해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므로,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sup>74)</sup>

반면 명측 문서는 崇禎 12년(1639) 6월, 登萊의 水師 將兵들이 상인을 대동하고 조선 배를 맞이하여 대규모 밀무역을 벌였다가 적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75)</sup> 그런데 조선에서 皇城島까지 건너온 주체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麗人 高通使”와 “麗僧 獨步”로, 이들은 지난 겨울(1638)과 今歲(1639)에 廣鹿島·長山島 사이를 왕래하였다고 한다. 특히 獨步는 陳總鎮, 즉 陳洪範의 “海外往來之人”이라고 명시하였다.<sup>76)</sup> 앞서 獨步가 비변사에 압송되었다는 점, 밀무역의 규모

72)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9월 18일.

73)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월 23일.

74) 한편 『續雜錄』 4, 戊寅 7월 16일 및 『春坡堂日月錄』(국립중앙도서관 古2150-35) 卷14, 仁祖大王實錄 下, 인조 16년 7월 기사와 『野言記略』 卷2, 戊寅 7월 기사는 인조가 陳洪範에게 보냈다는 咨文을 싣고 있으며, 그 내용은 崔鳴吉, 『遲川集』 卷17, 雜著, 「移陳都督咨(丁丑)」과 같다. 그러나 『遲川集』에서 咨文의 연도를 “丁丑”으로 밝혀 놓은 점, 전술하였듯이 인조가 咨文을 보내도록 한 것은 인조 15년의 일이고, 인조 16년 8월에 명한 내용은 출병이 부득이함을 변명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서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들 기록은 인조가 전년에 보내도록 한 咨文이 이때 민간에 누설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는 편이 적합할 듯하다.

75) 『明檔』 33, 二四七四, 「兵部爲登萊海防廳報查獲船隻夾帶綢緞參烟等海禁貨物事行稿(尾缺)」(崇禎 12년), 50~81쪽; 「爲馬肇遠等嚴緝務獲由」(內閣大庫檔案 201582-001, 崇禎 12년 10월 28일). 이때 거래된 人蔘은 淨參 150斤·參鬚 92斤이었고, 대가로 가져간 紬緞이 800疋이었으며, 人蔘이 모자라 退出한 潞紬도 254疋이었다.

76) 『明檔』 33, 二四七四, 「兵部爲登萊海防廳報查獲船隻夾帶綢緞參烟等海禁貨物事行稿(尾缺)」(崇禎 12년), 79~80쪽. 高通使는 누구인지 불명확하나, 후술할 定州의

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활동에는 조선 조정 및 당시 의주부윤·평안병사를 역임한 林慶業이 개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그해 8월에 내려진 인조의 명령에 따라 명 수비군과 접촉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문서를 전달한다거나, 특정한 외교적 행위를 벌인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명 역시 이들을 潛商으로만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인조 16년 8월 23일 인조의 명령을 받은 비변사에서는 獨步를 활용할 구상을 하고, 그를 평안도에 보내 명과의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명 공격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당장 명에 문서를 보내어 파병이 불가피했음을 변명할 필요는 사라졌다. 그 결과 실제로 실시된 “접촉”은 공식 문서를 통해 조선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밀무역을 수행하면서 명과의 연락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결국 이 단계에서 명의 軍門이나 조정을 상대로 한 외교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조는 명에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통보하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비변사에 압송되었던 獨步는 어느새 황해를 왕래하며 명의 수비대와 밀무역을 벌이고 있었다. 이는 명에 대한 파병이 현실화되었을 때 조선이 명에 밀사를 파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인조 17년(1639) 11월, 청은 다시금 명 공격을 위한 병력을 조선에 요구하였다.<sup>77)</sup> 이번에는야말로 명 공격을 위한 병력 파견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빗발치는 반대 여론 속에서 명에 파병 사실을 알려거나 朝聘을 다시 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sup>78)</sup> 그 중에서도

潛商 高忠元으로 추정된다.

77)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11월 25일, 12월 2일.

78)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1월 26일, 2월 13일; 趙綱, 『龍洲遺稿』 卷6, 疏, 「辭

가장 무게감을 가진 것은 이듬해(1640) 2월 병조판서 李時白이 올린 密劄였다.<sup>79)</sup> 그는 파병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위에서, 陳洪範이 金堉에게 “舟師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되 부득이하여 허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일에 앞서 통보해 달라”고 했음을 들어 명에 미리 통보해 대비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인조는 대신 및 비변사 당상들을 불러 李時白의 비밀 劄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영의정 洪瑞鳳과 우의정 姜碩期는 林慶業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명에 통보해줄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인조와 金蠹國·具宏은 의리상 통보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에 누설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sup>8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林慶業에 의한 밀사 파견은 실제로 이루어졌다.<sup>81)</sup> 林慶業은 舟師를 이끌고 전진하면서 풍랑을 빙자해 평안도 中軍 李舜男과 승려 獨步, 조선인 8명 등을 태운 배 한 척을 몰래 명으로 보냈다. 이 배는 崇禎 13년(1640) 4월 15일 寧遠 外海에서 명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들은 인조의 문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으나,<sup>82)</sup> 대신 조선 수군의 참전이 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조선군은 교전을 피할 것이라는 林慶業의 문서를 가져왔다.<sup>83)</sup> 이들은 또한 명이 長山島 등지에 군대를 전개시키면 조선군은 이를 핑계로 철수하겠다고 전하

司諫疏.

79)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80)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81) 이하 林慶業의 밀사 파견 및 王武緯의 1차 出使의 대략은 王剛, 앞의 글, 111~112쪽을 참고하였다.

82) 조선 밀사들은 “舊年我王有文書來投, 遇賊船劫去”하였기 때문에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조선국왕의 印信을 빼앗겨 奏報하기 어려워서 林慶業으로 하여금 대신 通信하도록 하였다고도 했다. 『明檔』 35, 二六二六 「兵部爲登萊塘報接獲高麗人及船隻事行稿」(崇禎 13년 5월), 304, 307쪽. 崔鳴吉 역시 뒤에 청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獨步에게 무기명 문서를 주어 보냈으나 水賊을 만나 겨우 빠져나왔고, 재차 파견하여 명에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월 23일)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인조 명의의 문서 발송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83) 『明檔』 35, 二六〇九 「兵部爲山東登萊塘報緊急夷情并調發准船准兵備用事題行稿」(崇禎 13년 5월 24일), 97~98쪽.

였다.<sup>84)</sup> 이는 林慶業 1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정의 밀명을 받아 崔鳴吉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sup>85)</sup> 이로써 공은 다시 명으로 넘어갔다.

## (2) 王武緯의 1·2차 出使와 동상이몽의 전개(1640~1641)

조선의 밀사가 찾아오자, 명의 신임 병부상서 陳新甲은<sup>86)</sup> 이를 이용해 조선과 결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선 조선에서 온 李舜男 등을 北京으로 호송할 것을 청하여 승정제의 허가를 받았다.<sup>87)</sup>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과 同鄉인 王武緯를 副總兵으로 발탁하여 登州에 배치, 조선과의 연락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王武緯는 崇禎 13년 8월 조선 수군의 진출을 막고 조선과 연락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그러나 王武緯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듯하며, 조선측 사료에서도 이들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sup>88)</sup> 대신 王武緯는 11월 17일 登州로 귀환하면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長山島에 병력을 주둔시켜 조선과 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sup>89)</sup>

1차 出使에 실패한 명 조정에서는 이듬해인 崇禎 14년(1641) 다시 조선과의 연락을 시도했다. 王武緯의 2차 出使에 대해서는 조선과 명 양쪽의 기록이 잘 남아 있으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양쪽의 사

84) 『明檔』 35, 二六二六 「兵部爲登萊塘報接獲高麗人及船隻事行稿」(崇禎 13년 5월), 307쪽; 『明清史料』 乙編 第3本, 「兵部行標下出海實授副總兵王武緯塘報稿」(崇禎 14년 1월 16일), 293쪽.

85) 鄭太和, 『陽坡年紀』(『大東稗林』 32) 辛巳 8월 15일, 401~402쪽.

86) 陳新甲은 崇禎 13년(1640) 1월 24일에 병부상서로 임명되어 崇禎 15년(1642) 7월 29일 下獄될 때까지 현직에 있었다. 張德信, 앞의 책, 675~677쪽.

87) 『明檔』 35, 二六二〇 「兵部爲登萊萬分堤防麗國調兵并加緊津關沿海等處海防事行稿」, 198~200쪽.

88) 단 王武緯가 1차 出使 때 밀무역을 했다고 비판받았음을 감안하면(王剛, 앞의 글, 112쪽), 조선 상인들과의 밀무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89) 『明清史料』 乙編 第3本, 「兵部行標下出海實授副總兵王武緯塘報稿」(崇禎 14년 1월 16일), 293쪽.

료를 토대로 그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보기로 한다.<sup>90)</sup>

崇禎 14년, 명 조정은 王武緯에게 “出使宣諭朝鮮并援黔實授副總兵官”의 직함과 遼東·山永·登萊의 沙號船 27척, 병력 468명, 명의 포로가 된 170명의 조선 사졸을 딸려 조선으로 보냈다.<sup>91)</sup> 그의 임무는 조선의 밀사 및 포로들의 귀국, 조선에 대한 정탐 및 회유, 島嶼의 순시, 청에 항복한 孔有德·耿仲明·尚可喜 등의 포섭이었다.<sup>92)</sup>

조선에서는 6월 13일 의주부윤 李敏樹로부터 漢船 출현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인조는 이것이 정보를 탐지하고 청에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으나, 청의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처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전년에 이루어진 林慶業의 밀사 파견을 전제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漢船 대처를 위해 林慶業을 백의종군시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이다.<sup>93)</sup> 또한 인조 및 도순찰사 沈演, 좌의정 申景禎, 우의정 姜碩期 등은 모두 명과의 연락 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sup>94)</sup>

8월 12일, 王武緯 함대의 선발대는 조선 雲從島에 도착하여 獨步 등을 보내 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sup>95)</sup> 8월 15일, 평안병사 李碩達은 평안감사 鄭太和에게 柳琳·林慶業 등이 평안병사였을 때 조정의 분부에 따라 서해로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중 한

90) 이하 王武緯의 2차 出使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2~114쪽이 명의 입장에서, 寺內威太郎, 앞의 글, 67~74쪽이 조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91) 『明清史料』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兩并麗國送稿細數殘稿」, 358쪽. 王剛, 앞의 글, 112쪽은 『國權』을 근거로 王武緯가 4월에 出海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출발 명령을 받은 것은 3월 초였다. 『明清史料』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并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5쪽.

92) 王剛, 앞의 글, 112쪽.

93) 실제 林慶業은 沈演 휘하에서 연해를 순찰하였다. 鄭太和, 『陽坡年紀』辛巳 6월 1일, 400쪽.

94)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6월 13일.

95) 『明清史料』乙編 第4本, 「宣諭朝鮮并副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13일), 334쪽. 獨步의 상륙은 “□□十二日”로 되어 있는데, 선발대의 보고는 8월 23일에 이루어졌으므로 8월로 추정된다.

명이 바로 獨步였다.<sup>96)</sup> 그가 전달한 문서는 薊遼總督 洪承疇, 遼東巡撫 丘民仰, 登萊巡撫 曾櫻이 연명한 咨文으로, 청에 항복한 잘못을 묻지 않고 조선의 포로를 돌려줄 것이니 皇上의 은덕에 감응하여 함께 청을 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97)</sup> 이로 인해 비변사에서는 문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sup>98)</sup> 조선 조정은 일단 명 선단이 가급적 해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조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음을 알리도록 조치하였다.<sup>99)</sup>

이러는 사이 王武緯가 이끄는 본대도 조선에 도착하였다. 표면적으로, 王武緯의 선단은 9월 3일 조선의 “通政大夫承旨參贊” 沈天民의 융숭한 영접을 받을 수 있었다.<sup>100)</sup> 王武緯의 보고에 의하면 沈天民은 조선이 청의 협박을 받아 “부모의 나라”와 연락할 수 없어 군신이 모두 슬퍼하였는데 지금 명의 宣諭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조선은 倭兵 600명을 빌려 청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를 들은 王武緯는 조선이 명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sup>101)</sup>

그러나 王武緯의 시각과는 달리, 조선 조정은 명과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청을 공격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조선에서는 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지만,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정보가 새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돌아가는 인편에 사정을 전한다는 문서를 다시금 獨步를 보내어 전달하는 데 머물렀다.<sup>102)</sup>

96)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1~402쪽.

97)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98)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5일. 여기서는 “勅書”라 하였지만 명측 자료에서는 勅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전달된 글은 洪承疇 등의 咨文뿐이었던 듯하다.

9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100)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兩并麗國送稿細數殘稿」, 358~359쪽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몇 차례 명군을 稿饋하고, 茶參 53斤, 쌀 550石, 은 1720냥을 지급하는 등 후대하였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명이 조선인들에게 지급한 은, 비단 등의 숫자도 열거되어 있다.

101)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撫福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340쪽.

102)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권43, 인조 20년 10월 19일; 『심양장계』

조선 조정이 獨步를 파견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명군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명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지, 명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王武緯의 보고에서도 조선에서는 “中國이 만약 진실로 능히 오랑캐를 죽일 수 있다면 我國의 君臣도 자연히 天朝를 돕고 오랑캐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만약 中國이 오랑캐를 죽일 수 없다면 우리는 저들을 돕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10만의 精兵이 아니라면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sup>103)</sup> 10만의 精兵 운운은 의심스럽지만, 형세상 청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먼저 명을 돕지는 못한다는 점은 확실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명의 접근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비밀로 하고자 했다. 王武緯 선단과 직접 접촉한 沈天民·李之龍은 명측 문서에 “承旨”, “都隸將軍” 등으로 기록되었지만,<sup>104)</sup> 실제로는 林慶業·鄭太和의 군관으로서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실무를 담당하였다.<sup>105)</sup> 한편 鄭太和는 漢船이 접근한 상황을 조정에 바로 보고하였는데,<sup>106)</sup> 좌의정 申景禎은 장계를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綾城府院君 具宏을 통해

壬午年(1642) 10월 17일. 이 문서를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2월 29일 기사는 揭帖이라 한 반면,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23일 및 『明檔』 40, 二九——「出使朝鮮福總兵王武緯爲麗使李世忠不日久住京都及起兵共圖搗剿事稟文(崇禎 15년 2월 2일), 243~244쪽에서는 咨文이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崔鳴吉·申景禎·具宏·姜碩期 등의 명의로 된 문서도 전달되었다. 『인조실록』 권 46, 인조 23년 2월 23일 참고.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福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6쪽에서는 이 문서를 “密稟”이라 부르며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후술하듯이 내용의 사실성은 의심스럽다.

103) 『明檔』 41, 二九六〇「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參事題本(尾缺)(崇禎 15년), 73쪽. 흥미롭게도 뒤에 명과의 연결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킨 沈器遠의 인식도 비슷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3월 21일, “小來則貽害於我國, 多來而兵力盛壯, 則勢不可不應.”

104)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宣諭朝撫福總兵王武緯塘報(崇禎 14년 10월), 340쪽;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奏銷賞功銀兩并麗國送稿細數殘稿」, 358~359쪽.

105)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15일, 20일, 11월 9일, 14일.

106)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인조에게 몰래 알리게 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李明漢만이 관련 문서를 전적으로 관장하였고, 崔鳴吉 외에는 다른 신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具宏·申景禎은 인조의 가까운 친척이자 반정공신이고, 崔鳴吉 역시 반정공신이자 獨步의 파견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며, 李明漢은 당시 비변사 有司堂上이었다.<sup>107)</sup> 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및 필요최소한의 실무관원에게만 상황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식이나 인삼, 은 등의 지급 역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sup>108)</sup> 평안 감사 鄭太和는 인조의 명령에 따라 宣川府使 李焜에게 밀서를 보내어 식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管餉使의 은과 인삼을 내어 王武緯 선단에 지급하였다.<sup>109)</sup> 또한 조선 조정에서는 인삼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 상인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sup>110)</sup>

청에 사실을 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었다. 당시 鄭太和는 청에 명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여 훗날 변명할 계책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으나,<sup>111)</sup> 조정에서는 漢船이 조선 해안에 접근하여 방비를 엄중히 했다는 사실만 청에 보고하였다.<sup>112)</sup>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밀접촉의 실상은 당분간 안팎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sup>113)</sup>

107) 『비변사등록』 座目에 따르면 李明漢은 인조 19년 1월 18일 이후 그 해 대부분에 걸쳐 有司堂上을 역임하고 있다. 관련 장계를 비밀리에 처리했음은 寺內威太郎, 앞의 글, 68~69쪽에서도 지적되었다.

108) 『인조실록』 인조 19년 9월 10일; 『明檔』 41, 二九六〇「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參事題本(尾缺)」(崇禎 15년), 73쪽;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4일.

109)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2~404쪽.

110) 『심양장계』 壬午年(1642) 11월 10일; 寺內威太郎, 앞의 글, 73~74쪽.

111)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3일;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112)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9월 1일.

113) 羅萬甲은 당시 명에서 王都事라고 칭하는 자가 칙서 및 印信, 冕服을 전하러 왔으나 鄭太和·李碩達 등이 쫓아버렸고, 조정에서 상륙을 막도록 조치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羅萬甲, 『丙子錄』(尹在瑛 譯, 삼경당, 1985) 『雜記亂後事』, 323쪽. 또한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5일 참고.

하지만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 王武緯의 선단은 조선 조정의 회답을 받은 뒤에도 속히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物貨를 發賣하려고 하여 조선측과 마찰을 빚다가, 10월 초 청의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조선 연해를 떠나갔다.<sup>114)</sup> 이런 장기간의 체류는 결국 문제를 낳았다. 선천부사 李堯가 私人을 시켜 唐貨를 몰래 사들였다가 소문이 나자 潛商을 죽여 입막음을 한 것이다.<sup>115)</sup> 이는 청이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포착하는 한 빌미가 되었다.

### (3) 조명 비밀접촉의 발각과 파탄(1642~1644)

王武緯는 廣鹿島·長山島 등을 순시한 뒤, 崇禎 14년 11월 12일에 登州로 돌아왔다.<sup>116)</sup> 그는 이듬해 2월에 조선이 청의 위협과 명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관망, 주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 신료들이 연명한 “回稟”과 국왕의 “回咨”를 언급하면서 조선 신료들이 수십만의 병력을 鴨綠江에 배치하고 명과 함께 나아가 청을 토벌할 것을 청했으며, 鄭太和 역시 물자를 조달해 助兵하기를 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자신이 조선으로 하여금 명에 군사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밀약을 맺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재차 獨步와 함께 登鎮의 水師를 데리고 출항할 것과, 그 뒤를 淮安·浙江·川湖의

114)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3쪽;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9월 6일, 10일, 22일.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行標下副總兵王武緯呈稿」(崇禎 15년 2월 22일), 380쪽에 따르면 王武緯의 선단은 9월이 지나기 전에는 조선을 떠났다.

115)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3쪽. 그는 인삼과 쌀을 밀매하고, 6천 냥이나 負債를 지는 등 밀무역에 깊이 간여하였다.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윤11월 1일, 25일.

116)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行標下副總兵王武緯呈稿」(崇禎 15년 2월 22일), 380쪽. 이하 王武緯의 보고 및 陳新甲의 대응, 王武緯의 3차 出使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4~115쪽에서 다루고 있으나, 3차 出使의 실태에 대해서는 서술이 소략하다.

水師로 받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17)</sup>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나 조선의 대응을 감안할 때, 조선이 명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王武緯의 보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조선의 진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그가 제시한 전략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長山島 등을 개척하고, 水陸 2만의 병력을 동원해 鴨綠江·安州江 하구를 막아 조선과 청의 연결을 끊으면 결과적으로 錦州·松山の 포위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명의 병력동원 능력이나 조선의 실제 의향을 감안하면, 그의 전략은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sup>118)</sup>

명의 병부상서 陳新甲 역시 王武緯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水師를 파견하여 조선과 청의 연결을 끊는 방법만은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陳新甲은 王武緯의 요청대로 그에게 우선 水師와 전함을 주어 조선으로 출항하도록 요청하였다.<sup>119)</sup> 아울러 水師를 추가로 파견해 王武緯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王武緯에게는 조선의 起兵 일자 및 병력수를 속히 병부에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sup>120)</sup>

승정제도 崇禎 15년(1642) 5월 20일에 陳新甲에게 밀명을 내려 속히 遼東 督師로 하여금 差人과 水兵을 보내 조선을 회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薊遼總督 范志完은 關寧·登萊의 水師 3천 명과 戰

117)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5~376쪽; 『明檔』 40, 二九——「出使朝鮮副總兵王武緯爲麗使李世忠不宜久住京都及起兵共圖搗剿事稟文」(崇禎 15년 2월 2일), 243~244쪽.

118)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6쪽. 王剛, 앞의 글, 114쪽은 이 계획의 내용을 “紙上談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9) 『明清史料』 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副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6~377쪽. 王剛, 앞의 글, 114쪽에서는 이 사료를 근거로 陳新甲이 “聯緝圖奴”에 적극적이었다고 보았으나, 그는 조선에 끌어들이는 “不可必之舉動”보다 조선과 청의 연락 절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20) 『明檔』 41, 二九六四 「兵部爲朝鮮已願統兵相助事行稿」(崇禎 15년 2월 9일), 94~96쪽.

船 150號를 동원, 王武緯의 지휘 하에 조선으로 가도록 하였다. 당시 關寧·登萊 水師로서는 이번 출항이 큰 부담이어서, 范志完은 남방의 鄭芝龍이 거느린 水師까지 방어를 위해 覺華島로 동원해 줄 것을 청할 지경이었다.<sup>121)</sup> 병자호란 이후 명이 조선과의 연락을 위해 보낸 선단 중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것이다.

王武緯는 崇禎 15년 조선으로 출발하여<sup>122)</sup> 일단 皇城島에 도착한 후, 7월 17일 먼저 舵工 車禮榮으로 하여금 咨文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王武緯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너희가 작년에 온 뒤로 저들이 알고서 우리 官民을 무수히 죽였다. 지금 또 와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냐? 원래 약속에는 반드시 大兵을 일으킨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게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하며 선발대를 쫓아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王武緯의 선단은 하릴없이 皇城島로부터 登州로 철수하였다.<sup>123)</sup>

조선이 명의 추가 접촉을 뿌리친 것은 청에서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청은 조선이 명과 비밀리에 연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바 있었다.<sup>124)</sup> 특히 王武緯의 2차 出使 때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조선을 닦달하였다.<sup>125)</sup>

121) 『明清史料』 乙編 第5本, 「兵部行御前發下遼東督師范志完題殘稿(崇禎 15년 6월), 401쪽.

122) 그의 출항 시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王剛, 앞의 글, 115쪽에서는 崇禎 15년 봄이라고 서술하였으나, 『明清史料』 乙編 第5本, 「兵部行御前發下遼東督師范志完題殘稿(崇禎 15년 6월), 401쪽을 보면 王武緯의 출항은 빨라도 6월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123) 『明檔』 41, 二九六〇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參事題本(尾缺)」(崇禎 15년), 74~75쪽. 조선측 자료에서도 이번에는 漢船의 문서를 받지도, 접안을 허락하지도 않고 쫓아내었다고 한다.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16일 및 『심양장계』 壬午年(1642) 8월 17일, 18일, 28일, 9월 14일, 10월 16일, 20일 참고.

124)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 2월 20일, 권41, 인조 18년 10월 15일, 11월 7일; 『鄭泰濟史草』 崇禎 10년 12월 庚申(26일), 崇禎 11년 5월 甲子(2일); 『심양장계』 丁丑年(1637) 9월 6일, 戊寅年(1638) 3월 18일, 庚辰年(1640) 7월 3일; 『清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6월 18일.

이런 상황에서 王武緯가 2차 出使를 마치고 조선에서 떠난 직후인 인조 19년 11월, 인조 17년(1639) 명으로 도망간 崔孝一의 일족인 張後健이 漢人을 통해 崔孝一과 연락하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전의주부윤 黃一皓 및 崔孝一의 일족 10여 명이 처형당했다.<sup>126)</sup>

이때 조사를 위해 나온 淸使는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단서를 잡았다.<sup>127)</sup> 淸使는 앞서 선천부사 李燧에 의해 처형당한 潛商 金春白의 처를 통해 정보를 얻어 宣川의 船人 徐己里金을 붙잡아 심문하였으나, 그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sup>128)</sup> 그러나 淸使는 이를 통해 李燧가 명과의 연락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양에서 李燧와 潛商들을 심문한 뒤 李燧를 의주에 구금시켰다.<sup>129)</sup> 이때까지만 해도 청에서는 이 사건을 밀무역 사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해 11월에 전라도 靈光으로 표류해 온 漢人들을 瀋陽으로 압송하는 것이나<sup>130)</sup> 명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王武緯 선단 접근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청에 상황을 보고하고 정탐선을 보내는 한편 경계를 게을리한 관원들을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131)</sup>

결과적으로 조선과의 접촉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고받은 薊遼總督

125) 『심양장계』 辛巳年(1641) 4월 11일, 19일, 5월 14일, 19일, 27일, 6월 4일, 5일, 12일, 15일, 25일.

126)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11월, 404~405쪽;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0월 24일, 11월 9일, 12월 8일. 이 사건의 충격에 대해서는 한명기, 앞의 책, 5~6쪽 및 181~183쪽 참고.

127) 이에 관해서는 寺内威太郎, 앞의 글, 69~70쪽의 서술을 참고하였다.

128)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11월, 405~406쪽.

12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1월 12일; 『심양장계』 辛巳年(1641) 12월 23일, 壬午年(1642) 2월 23일.

130)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11월 23일.

131)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9월 3일, 7일, 12일, 10월 1일, 3일;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9월 8일; 『비변사등록』 인조 20년 8월 26일, 9월 3일, 6일, 8일;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20일.

范志完은 조선이 몰래 명을 따르고 있으나 청의 위세에 눌려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려운 만큼, 舟師의 출동은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정제의 윤허를 받았다. 조선에 대한 단기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sup>132)</sup>

王武緯의 3차 出使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조선과 명 양쪽에서 벌어진 사건은 양국의 비밀접촉을 파탄으로 몰아갔다.<sup>133)</sup> 아직 王武緯가 바다에 있던 崇禎 15년 7월, 陳新甲은 청과의 강화를 희망하던 승정제의 의향을 누설한 죄로 하옥되었고, 9월에 처형되었다.<sup>134)</sup> 이는 王武緯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登萊巡撫 曾櫻은 王武緯가 조선을 회유하기보다는 인삼을 밀매하고 상인과 이익을 나누는 데 열중하였으며, 청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을 끌어들이는 것은 “空說”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러 차례의 出使를 추진, 수십 만냥의 비용을 낭비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135)</sup> 王武緯는 이를 계기로 실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명 조정과 登萊 군문에서 적극적으로 대 조선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崇德 7년(1642) 2월, 청군은 松山城을 함락시켰다.<sup>136)</sup> 청은 이때 포로로 잡은 薊遼總督 洪承疇 및 그 휘하 장령들을 통해 명과 조선의 비밀접촉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洪承疇는 王武緯의 2차 出使 때 자신이 연명한

132) 다만 范志完은 별도로 사람을 뽑아 몰래 조선 경계에 보내어 때때로 通信하도록 함으로써 조선과의 연락은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明清史料』 乙編 第5本, 「兵部行御前發下關遼督師范志完題稿」(崇禎 15년 9월 8일), 423쪽.

133) 陳新甲·王武緯의 실각에 대해서는 王剛, 앞의 글, 115쪽이 간략히 다루고 있다.

134) 閔崇年, 앞의 책, 491~495쪽 참고.

135) 『明檔』 41, 二九六〇 「登萊巡撫爲登州水右營副將王武緯罪狀多端從實糾參事題本(尾缺)」(崇禎 15년), 72~77쪽. 이 문서가 작성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陳新甲을 “舊司馬”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실각 이후임은 분명하다. 曾櫻은 해상으로 청을 견제한다는 발상 자체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明清史料』 乙編 第6本, 「兵部題兵科抄出登萊巡撫曾櫻題稿」(崇禎 16년 4월 1일), 555쪽.

136) 錦州·松山 전투의 전개는 閔崇年, 앞의 책, 349~406쪽 참고.

咨文을 보내고 水師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潛商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던 전 선천부사 李桂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sup>137)</sup>

인조 20년(1642) 10월부터 청은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시작하여, 崔鳴吉·閔聖徽·李明漢·鄭太和·林慶業 등의 고위 신료들과 李之龍·沈天民 등의 실무자들 및 高忠元·鄭二男·申金伊 등 潛商, 뺏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청은 이 사건을 林慶業·崔鳴吉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고위 관원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데 비해 登州·寧遠까지 왕래했던 潛商·船人들은 밀무역의 죄로 처형함으로써 사안을 마무리하였다.<sup>138)</sup> 조선은 다시는 명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이 이후에도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과의 비밀접촉 실무를 관장했던 林慶業은 청으로 가는 길에 탈주, 이듬해 崇禎 16년(1643) 가을에 명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다.<sup>139)</sup> 또한 林慶業의 탈주를 조장했던 沈器遠은 인조 22년(1644) 3월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처형되었는데, 이때 그는 林慶業을 통해 명군을 끌어들이려 했다거나, 명군과 협력해 遼東의 회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sup>140)</sup> 하지만 이는 어떤 실제적 행동

137)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12일, 18일; 『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4일, 15일.

138) “제2차 瀋獄”의 전말에 대해서는 寺内威太郎, 앞의 글, 62~78쪽이 상세하다. 이 사건에 대한 청의 인식은 『淸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6일 및 『同文彙考』 別編 卷3, 筋論, 「【壬午】遣使至界查按私通明朝勅」, 「諭囚斥和臣等斬高忠元等勅」 참고. 청은 이를 “臣下の所爲”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조의 명으로 인삼과 은이 명 선단에 건네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139)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1월 6일, 권47, 인조 24년 6월 17일; 『明檔』 101, 46 「兵部爲接獲被虜架船歸投的高麗人林慶業情形的題稿(崇禎 16년 11월 14일), 327~331쪽.

140) 沈器遠의 반란에 대해서는 寺内威太郎, 「沈器遠의 반란と朝中關係」, 『駿台史學』 133, 2008 및 한명기, 앞의 책, 211~213쪽을 참고. 이때 李之龍·沈天民도 연

으로도 이어지지 못했으며, 조선 조정 차원에서 명과의 연락을 취하려 했던 흔적은 명의 멸망 때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오히려 연해에 침입해 들어온 漢船과 교전까지 벌이는 실정이었다.<sup>141)</sup>

반면 명에서도 조선과의 연락을 추구할 원동력이 상실되어 갔다. 崇禎 15년(1642) 말 청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山東 대부분이 청군에 의해 유린되었고, 登州 역시 함락되었다. 이로 인해 登萊 방면의 명군은 다시 해상 작전을 펼 여력을 잃어버렸다.<sup>142)</sup> 崇禎 17년(1644) 3월, 李自成的 농민반란군 앞에 멸망 직전에 이른 명 조정은 登萊·天津을 비롯한 각지의 지방군에 즉각 京師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기에 이른다.<sup>143)</sup> 조선과의 연락은커녕, 水師의 활용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北京이 함락됨으로써 명은 멸망하였다.

#### 4. 조명 비밀접촉의 배경과 의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은 중간 중간 끊기기는 했지만 병자호란 이후 명의 멸망 직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다면 조선과 명은 각각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비밀접촉을 전개하였을까?

일단 두 나라 모두 양국의 관계의 단절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명은 언젠가 조선이 다시 조공

루되어 제거되었다.

141)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8월 18일;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8월 15~17일.

142) 王剛, 앞의 글, 115쪽.

143) 『明檔』 46, 三三八九 「兵部爲着東撫天津登萊等兵整辦待調奉旨并咨各撫限日事行稿(首缺)」(崇禎 17년 3월 3일), 74~77쪽.

해 올 것을 상정하고 있었으며,<sup>144)</sup> 조선 역시 崇禎 연호의 사용, 望闕禮 거행 등을 통해 의례적 차원에서나마 내부적으로 명과의 군신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145)</sup> 따라서 조명 비밀접촉은 “정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조선과 명은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은 조선을 활용해 청을 견제한다는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과의 접촉을 추진하였다.<sup>146)</sup> 명은 錦州·寧遠과 宣府·大同 방면에서 청과 대치하면서, 登萊-椶島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해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청의 후방을 견제해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병자호란 및 椶島의 함락을 통해 조선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오히려 登萊 지역 및 錦州·寧遠의 해상 보급선이 위협을 받게 되자 조선과의 접촉을 복구함으로써 측면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다시 청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명의 對 조선 정책의 전개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명 조정에서는 楊嗣昌의 주도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나 해외에 軍門을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였으며, 연해의 방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과의 최소한의 연결조치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병자호란 직후 이루어진 陳洪範의 활동은 명 조정의 정책을 무시한 현장의 독단적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명의 對 조선 정책 추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명 조정은 병부상서의 교체, 錦州·寧遠 방면에 대한 청의 군사적 압박 강화, 조선 수군의 위협 가시화, 그리고 조선의 선제적 밀사 파

144) 『明清史料』乙編 第3本, 「石城島千總鄴定國隱匿哨獲麗船參斤等情殘件」, 233쪽; 楊嗣昌, 『楊文弱集』卷24, 疏, 「覆登撫島事初定疏」.

145) 이러한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桑野栄治, 「朝鮮仁祖代における対明遥拝儀禮の変容: 明清交替期の朝鮮」, 『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12, 2016, 176~187쪽 참고.

146) 王剛, 앞의 글.

견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뒤에야 다시 조선과의 연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陳新甲은 楊嗣昌처럼 榑島를 통한 청 견제의 무용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병부상서가 되었을 때는 錦州·寧遠에 대한 청의 공격과 조선 수군의 병력·물자 수송이 결합되어 전선의 압력이 훨씬 강해진 시점이었다. 이는 반대로 조선의 청에 대한 물자 지원만 끊는다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sup>147)</sup> 명 내부에는 對 조선 정책에 관하여 적극론과 소극론이 잠재되어 있었고, 상황의 전개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또한 명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연결 시도는 기회비용이 적은 정책이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王武緯의 조선 出使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명이 잃은 것은 舟師 운용비용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동원 병력이 수천 명 남짓이었으므로, 登萊 지역에는 무거운 부담일지라도 청과의 전선을 유지하는 전체 비용에는 비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명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황에 맞춰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이 대명 비밀접촉을 추진한 배경은 대명의리론과 명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sup>148)</sup> 대명의리론은 조선 군신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였으며, 주화·척화 논쟁 역시 대명의리를 전제로 한 위에서 그 실천의 정도와 방향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이었다.<sup>149)</sup>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에도 명에 조선의 상황을 주달하고 명과의 관계를 비밀리에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이념적 압력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인조를 포함한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명에 대한 奏

147) 『明清史料』乙編 第4本, 「兵部題行御前發下宣諭朝鮮冊總兵王武緯奏稿」(崇禎 15년 2월 13일), 376쪽; 『國權』卷97, 崇禎 14년 6월 乙卯(11일), 7월 壬寅(28일).

148) 『鄭泰濟史草』崇禎 11년 5월 癸亥(1일), “向日受書與否, 實關大義, 亦涉國家安危之機”

149) 허태구,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奎章閣』 47, 2015, 180~189쪽.

聞은 천하와 후세에 면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sup>150)</sup>

다른 한편 대명의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성이 훼손된 인조 정권의 입장을 고려하면,<sup>151)</sup> 명과의 밀통이 인조의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인조는 명에 조선 사정을 奏聞할 것을 주장한 趙綱에게 이미 통보했음을 밝혀 호의적 반응을 끌어낸 바 있으며,<sup>152)</sup> 『인조실록』의 사관은 崔鳴吉이 “士類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는 후일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밀사 파견을 주도했다고 서술하였다.<sup>153)</sup>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조 및 조선 조정이 명과의 접촉을 국내에 최대한 비밀에 부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명과의 접촉을 타진하도록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명이 청을 물리칠 경우 조선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었다. 당대인들에게 명이 1644년에 농민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고, 청이 入關하여 北京을 점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오히려 일반적인 조선 지배층들은 청이 조만간 패망할 것을 기대·예상하고 있었다.<sup>154)</sup> 명이 청을 물리친 뒤 자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명을 배신하고

15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13일, 권40, 인조 18년 2월 8일, 13일.

151) 한명기, 앞의 책, 185~193쪽.

152) 『인조실록』 권36, 인조 16일 5월 13일; 『승정원일기』 同日;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5월 乙亥(13일).

153)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23일.

154)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11일, 13일, 18일. 禮安의 사족 金垓(1577~1641)은 청이 명이나 몽골에 크게 패해 멸망이 멀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金垓, 『溪巖日錄』(한국사료총서 40) 八, 庚辰(1640) 6월 13일, 12월 1일, 8일. 趙綱 역시 청의 불리한 정세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정 지음, 권경열 옮김, 『용주간독』, 동국문화, 2015, 「又(四月二十一日)」, 249쪽(영인본 七九쪽) 및 「又(七月念六)」, 252쪽(영인본 八一쪽). 중국 정세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기존의 선입견과 희망에 의해 잘못된 정세판단을 내릴 수 있음은 하정식,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2008 및 拙稿, 「三藩의 亂 전후

청의 편을 들었던 조선을 징벌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sup>155)</sup> 또한 명의 국력이 당장 청을 물리치지는 못해도 조선을 징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인식도 있었다.<sup>156)</sup> 실제 당시 조선 조야에서는 漢船의 잦은 출몰에 적지 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sup>157)</sup> 따라서 명에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은 대명의리를 실천하는 한 방법임과 동시에 명이 승리했을 경우 조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조와 신료들은 명이 조선을 징벌할 위협성과 명과의 접촉이 청에 알려졌을 경우 미칠 파장의 크기에 대해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158)</sup> 인조 18년(1640) 2월, 인조는 명에 조선이 어쩔 수 없이 파병함을 통보하는 것이 나라를 보전하는 장구한 계책이라는 李景奭의 주장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天朝에서 반드시 크게 허물로 여기지는 않을 듯하다. 胡人이 만약 우리가 2백 년간 섬기던 나라라고 여겨서 우리의 정상을 헤아려 준다면 괜찮겠으나, 우리가 天朝와 힘을 합한다고 의심한다면 어찌 큰 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sup>159)</sup> 실제 위에서 살펴본 명의 태도와 이후 사태의 전개를 감안하면, 인조의 인식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청에 명과의 접촉 사실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명에 조선 사정을 보고하자는 논자들 중 일부는 의리를 들어 설득하

(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韓國史論』 60, 2014를 참고.

155) 조선 조정이 청의 불리한 정세를 들고 中朝가 승리할 기세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金垞의 비판은 이러한 위협성을 시사한다. 金垞, 『溪巖日錄』 八, 己卯(1639) 5월 9일.

156) 金尙憲, 『淸陰集』 卷21, 「請勿助兵瀋陽疏(己卯十二月)」.

157)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12일, “往在冬春間, 以砲聲出自海中 …… 人心洵懼皆以爲, 漢虜將至, 莫保朝夕.”

158) 대일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김태훈,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및 김태훈, 「인조대 전반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55, 2016 참고.

159)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면 청이 조선을 크게 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고,<sup>160)</sup> 鄭太和처럼 “天遠虎近”하니 어차피 청에 알려질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자도 있었다.<sup>161)</sup> 그러나 인조의 의견은 달랐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조 16년(1638) 陳洪範이 差官을 파견하여 문서를 전달해 왔을 때, 비변사는 문서를 접수하고 청에도 사실을 통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인조는 “문제가 생기면 주장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문서의 수령을 최대한 거부하고, 청에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는 인조가 비변사 신료들보다 명에 상황을 통보했을 때의 효용을 낮게 보고, 청의 반감을 훨씬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존망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군주로서 외교적 선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료들보다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16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자호란 패전 사실을 명에 통보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陳洪範에 대한 咨文 전달이나 獨步의 파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인조였다.<sup>163)</sup>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조선이 명과 직접 전투를 벌임으로써 대명의리를 공개적으

16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17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18일; 沈悅, 『南坡相國集』 卷3, 劄, 「戶曹判書時劄(戊寅七月)」; 趙綱, 『龍洲遺稿』 卷6, 疏, 「辭司諫疏」.

161) 鄭太和, 『陽坡年紀』 辛巳 8월 15일, 402쪽.

162) 신료들 중에서도 대체로 재야의 사대부들이나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관인들이 원칙론을 주장한 반면, 정국 운영의 책임을 진 고위 관인들은 원칙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명과의 접촉에 대한 의견 차이는 빈번하게 개진되었다.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18일, 『鄭泰齊史草』 崇禎 11년 4월 壬子(19일) 및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2월 13일 기사 참고.

163) 기존 연구에서는 崔鳴吉이 獨步의 파견을 주도했다고 평가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명기, 앞의 글, 219~225쪽; 허태구, 앞의 글, 2013, 111~112쪽. 그러나 獨步의 파견은 인조의 명시적 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배신하게 된다는 점이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조는 청의 징병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최소한의 대명의리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념적,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밀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인조 역시 대명의리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sup>164)</sup>

인조는 조정에서의 비밀접촉 관련 논의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신하들의 의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비밀접촉의 실행여부 및 방향을 최종적으로 재가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면서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sup>165)</sup>

명이 조선과의 접촉을 통해 군사적 효용을 기대했음에 반해, 조선이 명과의 접촉을 추진한 목적은 청에 대한 항복 및 조선군 파병에 대해 명의 양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sup>166)</sup> 대명의리론이나 명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모두 조선의 사정에 대한 명의 양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일치했다. 반면 명과의 군사적 연합작전 수행은 거의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청의 감시 속에서 조선의 역량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범주의 일이었다.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 비밀접촉은 결과적으로 동상이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도의 차이는 결국 양국에서 조명 비밀접촉이 갖는 위상의 차이에서 나왔다. 명에게 조선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여

164) 沈器遠의 인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정곡을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3월 21일, “自丙子以後, 竊瞞自上用意, 所眷眷於天朝, 而顧畏彼而力不贍耳.”

165) 이를 감안하면, 인조가 “친청적”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한명기, 앞의 책, 193~200쪽)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판은 허태구, 앞의 글, 2015, 186쪽의 주82 참고. 단 인조가 崔鳴吉 등에게 비밀접촉의 책임을 미루는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166) 허태구, 앞의 글, 2013, 111~112쪽.

러 외교적·군사적 옵션 가운데 하나였다면, 조선에게는 이념적으로는 당위, 현실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였으나, 동시에 국가의 존망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큰일이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어 명 조정에 비해 일관되게 명과의 접촉에 소극적, 피동적으로 대처하고, 獨步의 파견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조명 양국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양국 조정의 의지는 현장에서 교섭을 담당하던 주체들에 의해 변형되어 갔다. 당시 조선 연안에는 漢船이, 명의 해안에는 조선의 배가 종종 출몰하고 있었고, 밀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조 16~17년(1638~1639)만 해도 여러 차례 漢船이 平北 연안에서 목격되었으며, 이들 중 최소한 일부는 명백히 潛商과 연루되어 있었다.<sup>167)</sup> 인조 17년 8월에는 이전에 林慶業 막하에 있었던 崔孝一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명으로 향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sup>168)</sup>

병자호란과 椶島 함락으로 인해 조명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넘나들던 이들은 양국의 비밀교섭을 담당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명에서는 陳洪範·王武緯와 황해상의 섬들에 주둔하던 명의 장졸들, 조선에서는 林慶業 및 獨步, 潛商 高忠元과 徐己里鎭을 비롯한 平北 지역의 뱃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단순히 양국 교섭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양국 조정의 의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167)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7월 12일, 권38, 인조 17년 2월 20일, 24일, 3월 11일, 권39, 인조 17년 8월 16일, 22일, 9월 16일;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2일, 23일; 『仁祖成實史草』(한국사료총서 38) 7월 甲申(23일), 丙戌(25일); 『譯官上言謄錄』 己卯 12월 30일.

168)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8월 15일, 12월 20일; 洪瑞鳳, 『鶴谷集』 卷7, 補遺, 「陝西路物情劄」.

이들은 “경계인”이었다.

현장의 의향이 중앙 조정의 의지를 눌러버리는 현상은 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陳洪範은 병부상서 楊嗣昌의 의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조선 조정과 교섭하였으며, 王武緯는 과장된 보고를 올리며 그를 추천한 陳新甲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조선과의 연계 전략을 제출하였다. 이들에게서는 長山島·皇城島 등 명과 조선을 잇는 섬들에 軍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조선과의 관계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공통된 지향이 엿보인다. 이는 곧 毛文龍이 楸島에서 했던 일을 長山島나 皇城島에서 재현하려는 구상이었다. 왜 이들은 요동반도 남단의 섬들에 軍門을 설치하여 毛文龍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였을까?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밀무역의 이득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陳洪範의 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崇禎 10년(1637) 9월, 楊嗣昌은 20년간 楸島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은과 인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바다를 통해 적을 도모한다는 것도, 섬을 빌려 조선과 통한다는 것도 모두 인삼과 은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9)</sup> 登萊巡撫 曾櫻이 王武緯가 使命보다는 밀무역에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한 것과 王武緯 일행이 밀무역을 위해 오랫동안 머물며 출항을 지체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陳洪範이 제시한 楸島 탈환이나 王武緯가 제안한 錦州·寧遠에 대한 조선의 보급로 단절은 분명 군사적 의미가 있는 전략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제안자들의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陳洪範이나 王武緯의 선단 역시 이익을 찾아 조선 연해를 왕래하던 수많은 漢船 무리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조선측에서 비밀접촉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 역시 밀무역과 밀접한

169) 楊嗣昌, 『楊文弱集』卷18, 疏, 「覆登監兩帥關東土安危疏」. 毛文龍 이후 楸島の “海上勢力”의 무역활동에 대해서는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2005, 159~165쪽.

관계에 있었다. 獨步의 활동 자체가 밀무역을 동반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며, 林慶業 역시 의주부윤으로 재직하면서 청과의 밀무역에 간여한 죄로 처벌받은 바 있었다.<sup>170)</sup> 獨步가 登萊·寧遠을 왕래할 수 있게 해주었다가 처벌받은 平北의 지역민들도 밀무역에 종사한 潛商·벧사람들이었다.<sup>171)</sup> 王武緯 선단에 공급할 물자 조달을 맡았던 선천부사 李桂 역시 私人을 동원한 밀무역을 벌였다가 양국의 비밀접촉이 청에 발각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식 사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이 명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명-조선-청을 잇는 기존의 밀무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명 비밀접촉은 밀무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sup>172)</sup>

병자호란 이후의 조명 비밀접촉은 조선을 이용해 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명과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명의 양해를 얻고자 한 조선의 상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전략적·이념적 목적은 양국의 정세판단과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조응하며 실행에 옮겨졌고, 그 결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또한 양국 조정의 비밀접촉은 물밀의 밀무역 네트워크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17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12일. 비밀접촉의 실무자로 林慶業이 선택된 것 역시 그가 평안도에서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조선에 왕래한 漢人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姜碩期, 『月塘集』 卷2, 疏劄, 「密劄(因筵對未及上)」.

171) 『清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6일에는 이들의 이름이 “高調文(高忠元), 舍木處申(金), 欽木格力(歲), 吳多爾(歲), 祁嗎克(退), 希埋克(色), 欽木道(賴), 腦(歲)”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어 이름의 음차이다. 이들 중 일부는 청에 의해 “大商”, “潛商의 우두머리”로 지목받기도 했다(『심양장계』 壬午年(1642) 10월 6일).

172) 『同文彙考』 別編 卷3, 飭諭, 「諭囚斥和臣等斬高忠元等勅」, “詎意爾國違旨, 出邊挖蔘, 潛與明朝買賣, 令僧人名獨夫者, 往返通書, 遺之以銀麥糧米, 奸細出入, 亂行不絕.” 청에서 宣府·大同에 무역하러 간 사람이 조선의 空石에 담긴 人蔘櫃와 枝三을 발견한 것은 당시의 밀무역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양장계』 壬午年(1642) 8월 18일. 조명 비밀접촉의 배경에 명-조선-청 사이의 밀무역이 있었음은 劉家駒, 앞의 책, 364~365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병자호란 이전 조선을 둘러싼 국제무역 상황에 대해서는 辻大和, 「朝鮮の對後金貿易政策」, 『アジア遊学』 179, 2015 및 劉琳, 「仁祖前期(1623-1637)以朝鮮爲中心的東亞國際潛貿易」, 『朝鮮·韓國歷史研究』 17, 2016 등을 참고.

안에서 조정의 의지는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고 무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와 그 파탄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사료가 산재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마다 사료가 결락되어 있어 당시 비밀접촉의 실상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흐름은 본문에서 정리한 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청에 항복하여 명과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명과의 비밀접촉을 추진한 조선 조정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망해가는 명”을 위해 의리를 지키려는 “비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의 급속한 멸망은 당대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대명의리론 역시 당대인들의 정신세계에서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명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 조정이 대명의리와 국가의 생존을 양립시키려는 고뇌 속에 도달한 방책이었던 셈이다. 명과 청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암중모색의 상황 속에서, 인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은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조선이 건국과 동시에 명과의 사대관계를 추구해 왔으며, 그것을 200년 넘게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아무리 전쟁이라는 충격이 있었다고는 해도, 기존의 익숙했던 질서 및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올바른” 질서이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명에게 조명 비밀접촉은 정치, 군사적인 선택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조선에는 국가의 생존과 함께 이념적 실존이 걸린 문제였다. 명과의 “이별”은 병자호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명 비밀접촉이라는 여진을 남겼던 것이다. 이때의 조명 비밀접촉은 조선이 대명의리를 대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했던 마지막 노력이 되었으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역사적 경험은 이후 조선의 대명의리 실천을 대내적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73)</sup>

아울러 조선과 명의 비밀접촉을 가능케 했던 해상 밀무역망의 존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毛文龍의 東江鎮 설치를 계기로 활성화된 조명 해상 루트는 병자호란을 통해 크게 약화되기는 했으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으며, 조명 비밀접촉 역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644년 명의 멸망과 청의 入關은 단순히 명의 숨통을 끊은 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17세기 전반 활발했던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해상 교류 역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7.4.8,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병자호란, 명칭교체, 비밀접촉, 東江鎮, 인조, 최명길, 임경업, 獨步, 대명의리, 漢船, 밀무역

173) 효종대와 숙종대에도 북벌론의 대두와 함께 南明 및 반청세력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논의가 등장하였으나, 결국 현실적인 요인으로 묵살 혹은 거부된 바 있다. 『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8월 16일, 10월 25일; 『숙종실록』 권2, 숙종 원년 1월 24일; 권3, 숙종 원년 4월 3일.

&lt;ABSTRACT&gt;

## Secretive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after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Joseon in 1637

Lee, Jae-Kyung

Previous works on Joseon's foreign relations have focused on Joseon's response to the Ming-Qing transition. In the course, the year of 1637, when the Qing dynasty subjugated Joseon, was regarded as a turning point. However, the Ming dynasty had not perished until 1644, and unofficial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through the smuggling route across the Yellow Sea continued even after their official relationship was cut off.

Secret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During the first phase(1637-1638), Ming admiral Chen Hongfan(陳洪範) tried to appease Joseon in order to get Joseon's cooperation on his attempt to construct a new military base on the Yellow Sea, which would replace destroyed Dongjiangzhen(東江鎮) Garrison on Gado(椴島) Island. The Joseon court appreciated his sympathy for Joseon's difficult situation, but denied his demands and rejected future contacts from him. For the second phase(1638-1640), the Qing dynasty ordered Joseon to send its troops to attack Ming territory. In response, Joseon sent the monk Dokbo(獨步) as a secret envoy to Ming to inform that Joseon inevitably had to send soldiers for Qing's aid. The third phase(1640-1644) was composed of two sub-phase. From 1640 to 1642, Ming dispatched its navy to Joseon for three times to gain Joseon's military support. Joseon ostensibly welcomed Ming officials but rejected any urge of military cooperation. From 1642 to 1644, the Qing dynasty noticed the secretive contacts and cracked down on Joseon. Meanwhile, the agents of secret contacts got arrested and removed from power in both countries. Thereafter, secretive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cut off to the end of the Ming dynasty.

While secretive contacts with Joseon was just a diplomatic and military choice to Ming, for Joseon they were an ideological way to practice its moral obligation to the Ming dynasty(對明義理) and a realistic policy to guarantee its survival in unpredictable chaos of the war between Ming and Qing. Ming's goal was to acquire Joseon's military support, whereas Joseon only wanted the Ming dynasty to understand its inevitable situation. Thus, secret contacts between the two states naturally ended in vain.

Meanwhile, secretive contacts between Joseon and the Ming dynasty made possible by smuggling network across the Yellow Sea. In the process, the will of the two central governments had to be filtered and distorted by the agents with their own personal and economic aims. As a result, their participation affected the course of the secretive contacts.

Keywords :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Joseon in 1637(丙子胡亂), Ming-Qing Transition, Secret Contacts, Dongjiangzhen(東江鎮) Garrison, King Injo, Choi Myunggil(崔鳴吉), Im Gyeong-up(林慶業), Monk Dokbo(獨步), Moral Obligation to the Ming Dynasty(對明義理), Chinese Ships(漢船), Smuggling